

## 창작자의 죽음

르네상스 이래 미술이 독특한 지위를 획득한 이후, 화가 조각가 등 창작자는 창조자, 신과 같은 지위를 누려왔다. 근대 미술의 역사는 이러한 예술가=신이라는 등식 관계를 강화시켜 온, 신화화 과정의 역사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볼 때 1966년 롤랑 바르트가 쓴 “창작자의 죽음”은 서구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 처럼 바르트는 전지적 능력의 소유자, 창조자로서의 작가의 죽음을 선언 했던 것이다. 더 이상 유일무이한 오리지널은 없다. 모든 작품들은 공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부딪치고 뒤섞이며 혼합되고 절충된다. 이제 예술의 미덕은 그것의 엄숙장엄함이나 유일무이성이 아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술의 미덕은 그것이 해석되는 지점이 있을 뿐이라 데 있다. 이것은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철학, 김형효, 민음사 p 15-28 ‘책과 텍스트의 구분’ 참조)

데리다가 의미하는바의 책은 절대 불변의 진리, 데카르트적 의미에서의 주체적 자아와 같은 계보에 서있다. 그러나 진리란 푸코에 의하면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소산이고 통일적 주체적 자아는 라깡에 의해 분열적 타자로 대치되었다.

텍스트는 폐쇄적, 고립적, 주체적 존재를 거부하고 생성적, 맥락적, 관계적 존재를 받아들인다. 텍스트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고정불변의 현존적 의미가 없다. 주변의 다른것들과 무수한 접목을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텍스트 이론은 주어진 공간과의 관계와 맥락을 중시해야하는 공공미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